

일본 내 면방적 - 2006년 10월에 운전가능설비 100만추대를 밀돌다

일본방적협회 회원사의 운전가능추수는 2006년 10월말로 96만 2천추로 줄어들어 100만추대(台)를 밀돌게 되었다. 현재의 통계방식으로 바뀐 1971년에는 1,147만추이었다. 35년이 지난 오늘에는 1/10 이하의 규모로 줄었다.

그 동안 일본 내 면방적설비는 계속 축소되는 경향이었는데, 2006년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 빨라졌다. 섬유산업에서 방적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일부 기업은 서둘러 사업구조를 바꾸고 개혁하려 하고 있으며, 방적시설뿐만 아니라 염색가공이나 봉제까지 포함하여,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설비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어떤 방적관계자는 “20년쯤 전에 일본 내의 방적규모가 100만추 정도만 되었다면 단숨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라는 농담도 하였었는데...”라며, 끝없이 축소되는 설비의 바닥을 알 수 없는 오늘의 상태를 한숨 쉬면서 말하고 있다.

방적설비를 빠르게 다시 편성하게 된 요인은, 일본 내의 소재(素材)수요가 줄어든 것 외에도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 해외방적의 기술수준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80수 쌍사(雙絲), 100수 쌍사까지도 수입품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방적설비를 재편(再編)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닛신보는 2005년 12월 중순에 도야마(富山)공장을 폐쇄하면서 일본 내 섬유설비의 재편을 발표하였다.

이 재편실시로 방적설비는 도야마공장이 5만 5,600추를 전면 정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마다(島田)공장에서 1만 7,100추, 후지에다(藤枝)공장에서 4만 1,700추를 삭감함으로써 합계 11만 4,400추를 축소하였다.

또한 시키보는 2006년 6월에 1만 2천추의 시설이 있는 시키보고오찌(高知)를 해산하였다. 이 설비와 공장은 KB프즈끼에 매각되어 전 방적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KB프즈끼는 일본방적협회의 회원이 아니므로, 이 추수는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6년 10월말에는 곤도방적소(近藤紡績所)가 4만추 규모의 하마마쓰 제1공장을 폐쇄하였으므로 하마마쓰공장에는 방적설비가 전혀 없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곤도보의 방적설비는 오오마찌(大町)공장에 4만5천추, 호리가네(堀金)공장에 4만추, 사꾸라이(櫻井)공장에 6만추가 있어 도합 14만 5천추가 가동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하마마쓰 제2공장의 4만추, 제3공장의 6만추와 도요하시공장의 6만추로 도합 16만추의 조업이 정지되었으므로 2년 전의 36만추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준 것이다. 이외의 후지보파이버가 코어스핀양용 정방기를 약 1/3로 줄여 일부 설비를 삭감하였다.

위와 같이 방적설비는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면사 수입이 줄고 있어 지금 시점에서는 실의 수급(需給)이 타이트(tight)한 상태이다. 방적설비의 가동률은 2006년 9월, 10월에 80%로 회복되었다. 재고(在庫)도 2006년 초기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2007년 춘하절을 내다본 거래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풀(full)가동 중이며 실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소리도 여러 방적회사들로부터 들려온다. 또한 니트사 등에서는 어찌다 마땅한 실이 부족한 빈틈새기도 생기는 이변이 생겼다.

그러나 일본 내 방적설비의 축소가 이 상태에서 끝났다고 말할 수도 없다.

고전(苦戰)하고 있는 섬유기업들 가운데 수익(收益)을 개선하고자 남아도는 설비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다품종·소로트·단납기에 적합한 체제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동은 80만추 정도로 추정된다. 방적추수는 계속 축소되는 경향이겠지만 개별 기업에게는 남아있는 추수를 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설이나마 유지할거나 아니면 아주 전부 정지해 버릴건가를 결정할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택에는 개발이나 기술자 육성 등의 요소도 얹혀 있다. 또한 해외에서의 제조코스트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